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나은영 · 권준모
서강대학교 · 경희대학교

사람들이 억양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타인들의 출신지역을 판단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와 같은 시각적 자극이 아닌 청각적 자극(사투리)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구성하여 영남/호남 지역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였다. 음성 암묵적 연합검사와 함께 전형적인 시각 암묵적 연합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음성 암묵적 연합 검사의 방법론적 가능성과 함께 시각 암묵적 연합 검사와의 효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명시적 태도 조사를 통하여 두 가지 암묵적 연합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예측한 바와 같이 사투리 음성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 검사는 매우 변별력이 있는 암묵적 태도 측정 방법으로 밝혀졌으며, 명시적 태도측정치와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63$). 그러나, 시각 암묵적 연합 검사에 비하여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연구결과와 방법론적 함의와 함께 현실적 응용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암묵적 연합검사, 지역편견, 태도측정, 사투리, 음성, 암묵적/명시적 태도

지금까지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태도의 강도를 측정할 때 거의 모든 연구에서 자기보고법과 같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측정치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태도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예: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방향)의 함축을 지니고 있어서, 참가자들이 명시적으로 직접 드러내는 태도가 실제 태도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다 간접적인 태도측정 방법의 사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는 이와 같은 간접적 태도측정 방법의 하나이다.

IAT는 우리의 머리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은 유쾌한 단어와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은 불쾌한 단어와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 화면에 (1) 유쾌한 단어(예: 행복, 희망)가 나오면 오른쪽 키를 누르고 불쾌한 단어(예: 불행, 슬픔)가 나오면 왼쪽 키를 누르게 하는 반응과 (2)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자극(예: 꽃 이름, 출신지역 정치인 이름)이 나오면 오른쪽 키를 누르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연구 지원(KRF-2000-042-C00193)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M. Banaji 교수(Yale Univ.)와 A. Greenwald 교수(Univ. of Washington)의 도움이 있었다. 2001년 10월 19일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에서 본 저자들의 IAT 발표와 토론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던 학회 회원들, 그리고 유용한 도움말씀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고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자극이 나오면 왼쪽 키를 누르게 하는 반응을 짝지운 과제(양립가능한 과제)의 반응시간이 (1)과 (3)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자극이 나오면 왼쪽 키를 누르고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자극이 나오면 오른쪽 키를 누르게 하는 반응을 짝지운 과제(양립불가능한 과제)의 반응시간보다 빠르게 나오는 정도(IAT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고정관념이나 태도의 강도를 무의식적 또는 암묵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Greenwald, McGhee, & Schwarz, 1998).

전통적으로 명시적 태도 측정에 많이 의존해 온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지역과 관련된 암묵적 고정관념의 활성화와 억제효과를 본 연구(안상수, 1999), 그리고 전형적인 시각자극을 이용한 IAT로 지역편견을 측정한 연구(홍영오 · 이훈구, 2001)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IAT의 방법을 단순히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투리 음성자극, 즉 시각이 아닌 “청각자극”을 이용한 IAT를 시도하여 암묵적 태도 측정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영 · 호남의 사투리 음성을 듣기만 해도” 암묵적 지역편견이 활성화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까지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시각적 자극이 가장 우선적이다. 즉 흑인들에 대한 편견은 그들의 검은 피부와 생김새에 의해 활성화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의 경상도 · 전라도 지역편견은 청각적인 자극인 사투리에 의해 우선적으로 활성화된다. 암묵적 편견이나 태도가 사투리와 같은 청각적 자극으로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측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든 사회적 장면의 실제 생활에서 더욱 응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암묵적 태도의 측정 방법

태도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결여는 태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cf. LaPiere, 1934; Fazio & Zanna, 1981; Schuman & Johnson, 1976).¹⁾ 심지어 태도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학자도 있었다(Wicker, 1971). 그 후 태도 연구의 방향은 태도와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으로서 태도의 강도를 개념화하는 문제로 이어졌다(나은영, 1999 참조). 강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어 온 것은 사회판단이론에서 나온 자아의 관련정도(Hovland, Harvey, & Sherif, 1957; Sherif & Cantril, 1947), 태도에 대한 자신감(Sample & Warland, 1973), 태도가 얼마나 분명히 정의되었는가(Sherif, Kelly, Rodgers, Sarup, & Tittler, 1973), 혹은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일치성(Norman, 1975) 등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정보처리에서의 자동적 활성화 및 암묵적 처리에 대한 연구들도 태도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측정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나은영, 1998;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 1998 참조). Fazio (1986)는 기존의 태도측정방법이 태도의 자동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행동의 불일치가 생긴다. 강한 연합강도를 가진 태도는 대상에 직면했을 때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켜, 차후의 지각 · 범주화 등과 같은 정보 처리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태도와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Bassili(1996)는 인지과정에 관한 가정을 토대로 얻어내는 간접적 태도측정치를 조작적(operative) 측정치라고 부른다. 간접적 태도측정치로서 지금까지 비교적 많

1) 전통적인 태도 연구자들은 태도를 인지적 · 정서적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해 왔으나, 최근의 학자들은 점차 태도를 “태도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 간 연합”(Fazio, 1989) 또는 “정신적 대상과 연합된 정서(affect)”(Greenwald, 1989)와 같이 요약한 정의를 선호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를 “정서의 인지적 표상”이라고 보면(Stephan & Stephan, 1993, p. 117), 이런 정의들은 태도의 3요소 중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정의이다. 한편, 전통적인 고정관념 연구자들은 집단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을 고정관념, 정서적 측면을 편견,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차별행동(discrimination)이라고 구분해 왔다.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이 잘 변하지 않는 강한 태도의 경우 인지적 정교성과 감정적 강도를 그 안에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cf. Abelson, 1988) 인지적 · 정서적 요인을 분명하게 가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나은영, 1998 참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출신지역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역 고정관념”이라는 말보다는 정서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지역 편견”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시도되어 온 것은 태도반응이 나올 때까지의 반응시간(response time), 즉 지연시간(latency)을 측정하는 방법이다(e.g., Bassili, 1993, 1996).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을수록 기억 속에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높아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짧아지는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cf. Fazio, 1986, 1989).

Roskos-Ewoldsen과 Fazio(1992)는 강한 연합강도를 가진 태도 대상은 더 짧은 노출에도 잘 지각되며, 관련 없는 과제 수행 중에 우연히 제시되어도 더 잘 지각된다. 또한 태도의 연합강도는 대상을 범주화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Fazio, 및 Cejka(1996)는 다양하게 범주화될 수 있는 대상의 경우 개인에게 높은 접근가능성이 있는 태도의 범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예컨대 요구르트의 경우 '유제품'으로 범주화할 수도 있으며, '건강식품'으로도 범주화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체중감량으로 인해 유제품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요구르트가 '유제품'으로 범주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한가지 범주에 대하여 강한 정서적 반응을 지니고 있으면 그 범주가 더 많은 주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결국 대상을 그 범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 1998).

태도의 자동활성화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시간의 측정 은 태도측정의 방법론적 혁신 가능성을 포함한다. 기존의 태도 측정은 태도의 극단치(extremity)를 측정하는 선호도 평정에 의존하여,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태도를 감추는 반응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반응시간 측정은 자동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인종차별 · 성차별 · 지역차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편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로서 Fazio 등(1995)은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자동활성화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기저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12개의 긍정적인 형용사와 12개의 부정적인 형용사를 컴퓨터 화면에 무작위로 제시하고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좋은' 혹은 '나쁜'의 키

를 누르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 16개의 흑인과 백인의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고, 이것을 암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에 사진들에 대한 재인 검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과정은 위의 두 가지 과정을 합친 형식이었다. 얼굴 사진이 점화자극으로 제시되고 SOA 450ms 후에 표적형용사가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얼굴 사진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형용사의 긍정, 부정 판단을 최대한 빨리 내리도록 했다. 이 때 표적형용사에 대한 반응시간과 첫 번째 과제에서 판단한 동일한 형용사에 대한 반응시간과의 차이를 구한 것이 촉진 혹은 억제 정도를 나타내는 태도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이 실험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백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흑인 사진이 제시되면 긍정적인 형용사의 판단은 억제효과를, 부정적인 형용사의 판단은 촉진효과를 나타냈으며, 흑인 참가자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새로운 태도 측정치의 예언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다음 실험에서 흑인 실험자를 고용하여 백인 참가자의 행동을 친철 차원에서 평정하게 했다. 이때 형용사 판단의 촉진 정도는 행동평정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반응시간을 통한 새로운 태도 강도의 측정방법이 태도의 자동활성화 정도에서 개인차를 찾아내는 실질적인 방법임을 시사하며, 행동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태도 측정 방법임을 암시한다(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 1998).

암묵적 연합검사와 고정관념 연구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는 Greenwald와 Banaji(1995)의 암묵적 사회인지(implicit social cognition) 이론에 바탕을 둔 간접적 태도측정 프로그램이다. 암묵적 사회인지와 그 측정법에 관한 연구는 그 후 줄곧 이들에 의해 현재까지 주도되어 오고 있다. 1995년 이래로 이들은 흑백인 간의 태도, 자아개념, 고정관념 등의 측정에 IAT를 직접 활용한 많은 연구들을 축적해 오면서(e.g., Dasgupta, McGhee, Greenwald, & Banaji, 2000; 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더욱 최근에는 이처럼 축적된 경험적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태도, 고정관념,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 정서적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더욱 매끄럽게 통합하는 논문을 내고 있다(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k, & Mellott, 2000).

IAT를 사용한 태도 측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위에 말한 양립 불가능한 반응시간과 양립 가능한 반응 시간 간의 차이를 IAT 효과로 측정하여 꽃과 벌레에 대한 태도를 최초로 간접측정한 예가 대표적이다(e.g.,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실험1). Greenwald 등(1998)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1) 미국에 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강도(실험2), 그리고 (2) 미국 내 흑인과 백인 간의 편견의 강도(실험3) 등을 측정한 바 있다. 더욱 최근에는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의 측정에 IAT를 이용하기도 했으며(Greenwald & Farnham, 2000), 단어의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단어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다(Abrams & Greenwald, 2000).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신념들의 덩어리로 구성된 고정관념의 경우 어떠한 신념이 점화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지각과 판단, 그리고 후속적인 행동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 예컨대 “운동성 없는 성격”이 먼저 점화되는 경우 우리는 대학교수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지만 또 다른 경우 “학문적 호기심”이 점화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 사회적 집단에 관한 신념이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암묵적 또는 무의식적 고정관념화(stereotyping)이다. 고정관념화는 고정관념을 사용하여 어떤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나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단순히 어떤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다.

Katz와 Brady(1933)가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민족 및 사회집단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과거 고정관념의 연구는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원인과 결말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예컨대 흑백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들의 애매한 행동을 왜곡되게 지각한다는 연

구들이 그 예이다. 구체적으로, Sagar와 Schofield(1980)는 연필의 끝을 자기 친구의 목에 누르고 있는 아동의 슬라이드를 피험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때 슬라이드의 주인공은 한 조건에서는 흑인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백인이도록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은 이 애매한 상황에 대해 피험자들에게 해석을 내리도록 하였을 때, 흑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주인공의 성격을 판단자들이 “공격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백인이 등장한 경우에는 “장난이 심한”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이 진정으로 암묵적일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자기보고식)한 결과와, 고정관념을 측정 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주로 반응시간) 암묵적인 고정관념의 정도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암묵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Dovidio, Kawakami, Johnson, 및 Howard(1997)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흑인과 백인의 얼굴 스케치를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제시되던 자열(예: pppp)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얼굴이 명확하게 백인인지 흑인인지를 인식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지닌 목표단어 자극을 제시하고 그 단어가 ‘사람’의 범주와 관련 있는지를 없는지를 가능한 빨리 ‘네’,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목표단어에 대한 판단과제에 있어서 인종적 점화효과가 나타날 것을 가정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백인 피험자들은 흑인 점화과제에서보다 백인 점화과제에서 긍정적 단어에 대한 판단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반면, 부정적 단어에 대한 판단은 더 느려질 것이라 예상했다. 경험적인 증거들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백인이 점화된 경우 백인 피험자들이 긍정적 단어에 ‘사람’이라는 범주와 관련이 있다고 더 빠르게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아울러 이렇게 고정관념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암묵적인 고정관념 점수, 즉 단어에 대한 판단속도와 자기보고식 고정관념의 정도가 과연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존의 고정관념 척도, Modern Racism Scale 그리고 Attitude Toward Black척도의 점수들과 암묵적인 고정관념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암묵적인 고정관념의 양과

자기보고식 고정관념 점수와는 의의있는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고정관념의 정도와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표출하는 고정관념의 양이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외현적인 고정관념 척도가 사람들의 마음 속 고정관념을 측정함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여 준다.

성에 관한 고정관념 연구에서도 피험자들에게 의존적인 행동을 점화시키고 여성 표적 인물의 성격을 평정하라고 했을 때 표적 인물이 남성인 경우보다 더 의존적인 것으로 판정함을 발견하였다(Higgins, Rholes, & Johns, 1977). 목표 인물에 대한 판정 이전에 공격성 맥락을 점화시키고 남성이나 여성 표적인물에 대해 성격 판단을 하라고 하면 동일한 점화 자극을 제시받았어도 남성을 더 공격적인 것으로 판정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점화자극 이전에 이미 확고히 고정되어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성에 대한 암묵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적 사고는 작은 기회만 주어지더라도 즉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편견은 고정관념의 정서적 측면이다. 편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인지적인 구조를 비교한 연구에서, Lepori와 Brown(1997)은 편견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간에 고정관념의 지식 상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흑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서, 편견이 많은 사람은 범주명을 점화시켰을 때 표적인물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정한 반면 편견이 적은 사람은 아예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서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범주를 활성화하는 경우 고정관념의 무의식적 활성화는 실무율로 나타나지 않고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정관념의 내용을 점화하는 경우, 편견이 많고 적은 피험자간의 점화효과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그 원인은 두 집단간에 흑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적 지식의 양은 같았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성화되는데 고정관념 그 자체가 점화되거나, 혹은 범주가 점화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편견이 많은 사람이 범주명을 점화했을 때 표적 인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이유는

그들이 편견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 특성과 범주간의 연합을 더 강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고정관념보다는 편견, 즉 인지적 효과보다는 정서적 효과가 더욱 자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진국(1988)은 지역감정을 보다 사회심리학적 개념의 틀에서 사람들이 소속된 집단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혹은 집단적대감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세가지 요소, 즉 지역인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 편견(prejudice), 및 차별(discrimination)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정관념은 집단적대감의 인지적 요소로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성격이나 행동양식에서의 특징을 말한다. 예컨대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다.”, “전라도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다.”와 같은 특정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을 말한다. 편견은 정서적 요소로서 어떤 지역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일컫는다. 고정관념과 달리 편견은 매우 단순하며, 최근의 태도이론가들이 정의하는 “태도는 대상과 연합된 평가”라는 의미와 가장 잘 부합된다(Fazio, 1986). 차별은 행동적 요소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사람을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대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역감정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지역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심리적 제 측면의 실상에 관한 것들이다. 즉, 각 지방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고정관념의 내용과 호오 태도 및 차별에 대한 지각 등을 포함하는 실증적 조사연구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감정의 조장과 확대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혜숙(1988)은 대학생들을 자신의 출신지와 부모의 출신지로 구분하여, 각 지역민들에 대한 친숙도·경험, 고정관념, 호오도, 대인관계 거리감 등을 측정하였다. 그의 연구는 지역편견이 부모의 세대뿐 아니라 서울로 이주한 2세대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가정에서의 학습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획득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민경환(1989)은 권위주의적 성격과 지역편견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개인차 변인에 따른 지역편견의 정도를 밝혔다.

김혜숙(1993)은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지역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내적·안정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며, 대상인물에 대해 더욱 극단적으로 인상형성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안신호(1988)는 또한 지역고정관념을 Tajfel의 사회적 범주화(Tajfel & Wilkes, 1963; Tajfel, 1970)와 사회적 정체감 이론(Tajfel & Forgas, 1981; Tajfel, 1982)의 접근과 정보처리 이론, 범주화,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그리고 상관착각(illusory correlation)과 같은 사회인지적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경환(1988)은 Brown의 집단갈등의 틀을 도입하여, 동기적 기반인 자기집단 중심성(ethnocentrism) 혹은 내집단 선호성향(ingroup preference tendency)과 고정관념,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집단간 경쟁의 세가지 요인을 통하여 지역편견을 분석하였다. 이수원(1988)은 우리나라의 지역편견의 이해를 위해 집단간 고정관념의 형성과정과 고정관념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고정관념변화를 이룩하는 방법으로서 4단계로 된 태도의 평가차원의 기술차원으로서의 변화모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지역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Katz와 Brady(1933)가 사용했던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거나, 단순한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의 내용 및 정도를 측정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이론적 접근에서도 태도의 자동적 활성화나 암묵적 연합에 의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최근의 몇몇 연구(안상수, 1999; 홍영오·이훈구, 2001)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IAT를 이용한 태도측정에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을 선택한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많은 범주들 가운데 출신지역 범주가 성역할 범주와 함께 가장 중요한 범주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4월 13일의 총선거 후 투표자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크게 빗나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은 암묵적 태도측정 방법을 투표자 태도 조사에 일부라도 반영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신뢰로운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두 개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02년 현재, 후보자들의 지역 사

투리가 특정 지역인들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암묵적으로 유발함으로써 미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지역 편견의 자동활성화와 IAT

IAT는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 속에서 강하게 지니고 있는 태도나 고정관념일수록 더욱 자동적으로 잘 떠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자동적 활성화 과정을 반응시간으로 포착함으로써 태도나 고정관념, 또는 자아개념의 강도를 파악하려는 도구이다.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단순한 상황적 단서만 주어져도 거의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나은영, 1998). 여기서 “자동적”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 예컨대 흑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흑인을 암시하는 단서만 보아도 저절로 눈살이 찌푸러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됨을 뜻한다. 우리가 “영희”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의 자동적으로 “여자로구나” 하는, 그 사람이 속한 성(gender)의 범주(category)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자동적인 처리과정에 속한다(권준모·이훈구·이수정, 1998; 나은영, 1997).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보고 거의 저절로 “전라도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이 속한 지역의 범주, 그리고 이 범주와 연합된 평가나 신념체계가 떠오르게 되는 것도 자동적 또는 무의식적인 활성화 과정이다.

지역 편견이나 성고정관념과 같은 고정관념도 일종의 조건형성된 반응이기 때문에 연합된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자동적 활성화가 일어난다(Wilder & Simon, 1996). 고정관념은 주의깊은 정보처리가 실현될 가능할 때 일종의 잘 학습된 습관(well-learned habits)이나 휴리스틱(heuristics)으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self-identity)과 관련될 때 자기 개념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즉, 자기 자신에 관해 좋게 느끼고, 지각된 위협에서 자신을 방어하려고)도 사용된다. 의식적인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는 한 고정관념이나 강한 태도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들이 만성적 접근용이성(chronic accessibility)이 높은 일종의 사전기준치(default value)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은영,

1998; Higgins, King, & Marvin, 1982).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의 사전기준적 행동(default action)이며, 이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Smith & Zarate, 1992). 즉, 보통 상황에서는 고정관념처럼 강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고정관념이나 강한 태도의 외현적 표현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e.g., Blair & Banaji, 1996). 그러므로 의식적 통제 이전의 자연스런 진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IAT와 같은 도구가 유용하다.

위에 언급한 방법들 이외에도 태도의 강약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반응 지연시간을 포함한 직접적 · 간접적인 여러 방법에 의한 태도강도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연구도 있고(e.g., Krosnick & Petty, 1995), 각 측정치들이 태도의 유연성(plia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을 예언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비교한 연구도 있다(e.g., Bassili, 1996).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주어진 문제에 관한 태도나 고정관념의 강도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태도 및 고정관념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일보 진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투리와 편견

지역 사투리와 관련된 태도 연구에서 유주란과 김혜숙(1999)은 사투리의 음성과 억양을 이용하여 지역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득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사투리 음성을 통해서 지역감정의 감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합리적 메시지와 감정적 메시지를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감정적 메시지의 경우 내집단 설득자가 외집단 설득자보다 설득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지역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형성한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어떤 사람이 보여 주는 외적 특성들(외모, 옷차림, 장신구 등)과 내적 속성들(지적 능력, 성격, 지도력, 대화 능력 등),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언어적(verbal) 특성들(표준어를 사용하는지 사투리를 사용하는지, 품위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어법

에 맞게 이야기하는지 등), 부언어적(paralanguage) 특성들(말투, 발음, 말하는 속도, 강도, 굵기, 높낮이 등), 그리고 비언어적(nonverbal) 특성들(얼굴표정, 제스처, 자세, 대화자와의 거리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인상이 차후의 사회적 행동과 판단에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Giles & Farrar, 1979; Giles & Powesland, 1975).

한 연구에 따르면(Kalin, 1982),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취업면접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들려주고 해당 응시자가 그 직업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했다. 연구 결과, 똑같은 응시자라 하더라도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표준어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직업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연구를 위한 응답자 면접 상황에서도 면접자가 사투리를 사용할 때보다 표준어를 사용할 때 32%에서 77%까지 더 많은 반응비율(사용한 단어의 수)을 보였다(Giles & Farrar, 1979). 아동의 경우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사투리를 사용하는 아동보다 미래의 성취가능성과 고등교육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런 결과는 화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성취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Elwell et al., 1984; Giles & Sassoon, 1983; Seligman et al., 1972; Wiemann & Giles, 1988, p. 207과 한규석, 1995, p. 226에서 간접 인용).

한번 인상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의 내용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어 수신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상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아예 거부하거나 일치하는 쪽으로 그 의미를 왜곡시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마디가 전형적인 사투리로 들릴 때, 이 사투리 음성자극으로 인한 무의식적 편견의 유발이 차후의 모든 정보에 좋지 않은 (또는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친근감을 주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특정지역 사투리를 들을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고정관념의 내용과 방향이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사투리 사용자에 대한 차후의 판단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투리 음성에 의한 지역편견의 자동적

활성화 정도를 음성 IAT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IAT의 방법론적 진일보와 함께 사투리가 활성화시키는 편견의 현실적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 가설과 실험의 구성

가설1.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음성자극으로 측정된 IAT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 1-1. 영남을 선호하는 사람은 영남 사투리 억양이 좋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의 음성과 짝지워졌을 때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일 것이다.
- 1-2. 호남을 선호하는 사람은 호남 사투리 억양이 좋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의 음성과 짝지워졌을 때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일 것이다.

가설2.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각자극으로 측정된 IAT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 2-1. 영남을 선호하는 사람은 영남 지명이 좋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과 짝지워졌을 때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일 것이다.
- 2-2. 호남을 선호하는 사람은 호남 지명이 좋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과 짝지워졌을 때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지역 사투리 음성자극으로 측정된 IAT효과가 시각자극으로 측정된 IAT 효과 보다 더 클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먼저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한 자극단어들을 선정하고, 전형적인 시각자극 IAT 측정법과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청각자극 IAT 측정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본 실험을 구성하였다. IAT 측정이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은 명시적 태도측정에 참가하였다.

홍영오와 이훈구(2001)의 IAT를 이용한 지역편견 연구에서는 문자자극만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 측정을 IAT검사 다음에 실시하였다. 그들은 Greenwald 등(1998)과 같이 명시적 측정 결과와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McConnell과 Leibold(2001)의 연구에서는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상관관계는 실시된 검사의 순서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즉 홍영오와 이훈구(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암묵적 연합검사의 패러다임은 명시적 태도측정이 암묵적 태도 측정 후에 실시되므로, 암묵적 연합검사를 하면서 실험의 의도를 알아차린 참가자들이 명시적 태도 검사에 방어적 반응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참가자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명시적 태도 측정을 실시한 후 암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였다.

시각자극 IAT와 청각자극 IAT를 별개의 실험으로 진행하면 두 가지 검사 간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험 안에 두 종류의 감각양상(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를 함께 묶어 같은 피험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두 종류 검사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두 검사의 순서는 피험자마다 무선적인 순서로 바뀌도록 하여, 어떤 피험자는 음성 IAT를 먼저 하고 나서 문자 IAT를 하게 되고, 다른 피험자는 문자 IAT를 먼저 하고 나서 음성 IAT를 하게 되도록 하여, 검사의 순서 효과를 배제하면서도 두 검사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통합된 본 실험의 절반에서는 Greenwald 등(1998)이 처음에 사용했던 IAT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역 편견과 관련된 개념들(사전조사에서 선정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이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이 개념들이 호의적인 단어 및 비호의적인 단어(역시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와 반응키를 함께 쓸 때 반응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간접 측정치가 실험 전의 자기보고 측정치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지니는지, 그리고 오류율과는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실험의 나머지 절반에서는 시각자극 대신 청각자극을 이용하여, 음절수와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유사하지만 전형적인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로 들리는 어휘들(사전조사를 통해 가장 전형적인 사투리들을 선정)을 컴퓨터 헤드폰을 통한 소리로 들려주고, 자기 출신지역 사투리가 들릴 때 누르는 컴퓨터 키를

호의적인 단어가 들릴 때 누르는 컴퓨터 키와 같게 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이는지를 측정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명시적 측정치(explicit measures)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고, 시각자극을 제시했을 경우와의 차이점에도 주목하였다.

사전조사 : IAT용 자극단어 선택을 위한 온라인 조사

본 실험에 이용할 자극단어들을 선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http://www.pinkbomb.net> 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전 조사를 구성하였다.²⁾

친숙도 비슷한 영·호남 지명, 호모단어, 전형적 사투리 선택

본 실험에 앞서 시행한 예비조사에서는 실험에서 자극으로 사용할 단어들의 친숙도(familiarity)를 조사하였다. 단어 자극들의 영남쪽 세트와 호남쪽 세트 간 친숙도가 비슷한 수준의 단어들을 선별하여 본 실험에 이용함으로써, 친숙도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였다. 예컨대, 호남 지명으로 선택하게 될 전주, 광주, 남원, 익산 등이 영남 지명으로 선택하게 될 대구, 울산, 안동, 부산 등과 비슷한 친숙도(우리에게 익숙한 정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단어들의 친숙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자극세트들에 대한 영·호남 피험자의 평균 친숙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단어들을 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 IAT 효과가 친숙도(familiarity) 때문일 수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에 Dasgupta, McGhee, Greenwald, 및 Banaji (2000)가 흑백인 관련 태도를 측정하면서 친숙도만으로 모든 IAT 효과를 설명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친숙도 변인이 결과를 혼입시키지 않도록 호남 및 영남을 대표하면서도 친숙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지명과 사투리를 선별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참여자. 서울 경희대학교에 재학중인 수도권 출신 32명의 참가자들이 사전조사 사이트에 응답하였다.

자극선택 절차.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출신인 4명의 학생들에게 각 지역의 특징적인 사투리를 모두 쓰게 한 후, 예비조사를 위하여 사투리의 의미가 유사 하면서 3-4음절 정도 되는 전라도 및 경상도 사투리 16개씩을 각각 선택하였다. 명사인 지역사투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동사구 혹은 형용사구로 된 사투리를 위주로 선택하였다. 사투리에 대한 예비조사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서 32명의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웹페이지에서 wav file로 녹음된 사투리를 청취한 후 각각의 사투리에 대하여, '지역의 사투리다움(대표성),' '사투리의 느낌(긍정성),' '사투리를 들어본 빈도(친숙도)'를 7점 척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먼저, 음성 사투리 자극은 그 지역의 사투리 대표성을 토대로 10개씩 선택되었다.

연구 결과

발음시간 비슷한 전형적인 영·호남 사투리의 선택. 예비조사 단계에서 영·호남 출신 남성 대학원생 중 사투리 억양이 뚜렷하면서도 음색이 비슷한 두 사람들의 발음을 녹취하여 실험에 청각자극으로 이용하였다. 시각자극과 달리 청각자극의 경우는 유사한 자극이라도 영·호남 억양으로 뚜렷하게 달리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뜻이 유사하면서도 사투리의 음절이 다르지 않은 (예컨대, “뭐시여?”와 “뭐라꼬?” 또는 “위디가냐?”와 “어대가노?” 등과 같이 음절 수와 뜻이 달라지지 않는) 자극을 찾아 영·호남 억양 이외의 다른 조건들이 가능한 한 동일해지도록 맞추었다. 영·호남 억양으로 들릴 때의 친숙도가 비슷하면서도 억양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반응시간에 미치는 단어 자체의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음시간이 거의 동일한 자극을 본 실험의 자극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사투리. 표1은 각 사투리들이 얼마나 전라도(호남) 또는 경상도(영남) 사투리다운지를 7점 척도로

2)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했던 사이트는 <http://www.pinkbomb.net>(사전조사용), 그리고 <http://www.pinkbomb.net/iat>(시각적 테스트와 청각적 테스트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본 실험용)이었다.

표 1. 영·호남 사투리의 해당지역 "사투리다운 정도" 7점척도 평균치 ($n = 32$)

전라도(호남) 사투리		경상도(영남) 사투리	
사투리 어휘	평균	사투리 어휘	평균
1. 머덜라고 (뭐하려고?)	6.25	1. 밥무웃나 (밥먹었니?)	6.28
2. 어찌꼬냐 (어떡하지?)	6.13	2. 머어꼬 (뭐니?)	6.25
3. 머다냐 (무엇이라니?)	6.06	3. 와이카노 (왜이라니?)	6.25
4. 머시여 (뭐라고?)	6.03	4. 아이다 (아니다.)	6.22
5. 왜그냐 (왜그러니?)	5.94	5. 우짜노 (어찌지?)	6.13
6. 난못해 (난 못해.)	5.84	6. 모라꼬 (뭐라고?)	6.06
7. 밥무것냐 (밥먹었니?)	5.81	7. 말라꼬 (뭐하려고?)	6.00
8. 아닌디 (아닌데)	5.75	8. 어데가노 (어디가니?)	6.00
9. 머시냐 (무엇이니?)	5.69	9. 머하노 (뭐하니?)	5.97
10. 그만해 (그만해.)	5.44	10. 치아라 (치위라.)	5.94
11. 다했나 (다했니?)	5.38	11. 머묵노 (뭐 먹니?)	5.84
12. 워디가냐 (어디 가니?)	5.38	12. 난몬한다 (난 못한다.)	5.81
13. 머묵냐 (뭐 먹니?)	5.25	13. 와우노 (왜 우니?)	5.81
14. 왜우냐 (왜 우니?)	5.22	14. 다했나 (다 했니?)	5.78
15. 안그냐 (안 그러니?)	4.75	15. 안차라 (앉아라.)	5.75
16. 앙그라 (앉아라)	3.66	16. 안글나 (안그러니?)	5.38

주. 괄호 안은 해당 사투리의 표준어 뜻. 지역 사투리 전형성 점수가 높은 어휘부터 순서대로 열거함. 굵은 글씨는 선택된 사투리 자극.

몰었을 때의 평균치를 요약한 것이다. 표1의 각 지역 16단어 중에서 영·호남 사투리의 전형성(typicality) 정도가 높은 상위 10단어씩을 선정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 2는 표 1을 근거로 선택한 10개씩의 영·호남 사투리들만의 (1) 얼마나 전라도 혹은 경상도 사투리다운지(사투리의 전형성), 얼마나 좋은 느낌이 드는지(호오도), 그리고 얼마나 자주 들어 보았는지(친숙도)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2에서 지역대표성은 경상도 사투리가 전라도사투리에 비하여 평균 0.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1)=-2.995, p<.01$. 그러나 실험에서 보다 중요한 자극요소인 사투리의 호오도와 친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각 $t(31)=-0.361, p= .721, t(31)=-0.339, p= .737$.

선택된 긍정-부정 단어. 표3은 본 연구자들과 프로그래머 4명, 그리고 전형적인 영·호남 사투리를 사용한

다고 생각되는 대학생 2명이 모여 우리에게 친숙한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를 17개씩 선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역시 동일한 사전조사 웹사이트에서 32명의 사전조사 피험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하고 각 단어들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7점 척도로 몰었을 때의 평균치를 요약한 것이다. 각 표의 단어들 중에서 긍정성이 높은 상위 10단어와 부정성이 높은 하위 10단어를 선정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 2. 선택된 사투리(호남 10개, 영남 10개)만의 평균($n=32$)

	지역대표성	호오도	친숙도
전라도(호남) 사투리 10개	5.89 (0.99)	4.36 (0.91)	4.41 (1.36)
경상도(영남) 사투리 10개	6.11 (0.88)	4.40 (0.95)	4.35(1.39)

주. 7점척도 점수의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3. 긍정적-부정적 단어들의 긍정성 평균(n=32)

긍정적 단어		부정적 단어	
1. 행복	6.53 (0.72)	17. 실패	2.63 (1.45)
2. 믿음	6.38 (0.83)	16. 미움	2.38 (0.98)
3. 희망	6.34 (1.04)	15. 고통	2.34 (1.15)
4. 사랑	6.31 (0.97)	14. 공포	2.16 (1.14)
5. 감사	6.31 (1.06)	13. 구토	2.16 (1.14)
6. 축복	6.19 (1.23)	12. 거짓	2.13 (1.01)
7. 용기	6.16 (0.95)	11. 죽음	2.09 (1.06)
8. 기쁨	6.16 (1.11)	10. 절망	2.09 (1.00)
9. 평화	6.09 (1.20)	9. 질병	2.03 (1.03)
10. 생명	6.06 (0.95)	8. 비겁	2.00 (0.98)
11. 건강	6.03 (1.15)	7. 악마	1.91 (1.06)
12. 신뢰	6.00 (1.08)	6. 전쟁	1.84 (1.11)
13. 미소	5.97 (1.20)	5. 불행	1.78 (0.91)
14. 정직	5.94 (1.19)	4. 불신	1.75 (0.80)
15. 친구	5.94 (0.95)	3. 폭력	1.72 (0.96)
16. 천사	5.88 (1.10)	2. 지옥	1.66 (0.97)
17. 성공	5.72 (1.14)	1. 지주	1.41 (1.16)

주. 7점척도 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 굵은 글자는 선택된 자극.

표 4. 선택된 긍정적 단어 10개와 부정적 단어 10개의 긍정성과 친숙도 평균(n=32).

	친숙도	긍정성
긍정적 단어 10개	5.81 (0.91)	6.25 (0.70)
부정적 단어 10개	4.43 (1.23)	1.82 (0.65)

주. 7점척도 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

구체적으로, 동일한 웹페이지를 이용한 예비설문에서 35개의 긍정, 부정 단어 중 10개의 긍정 단어(행복, 믿음, 희망, 사랑, 감사, 축복, 용기, 기쁨, 평화, 생명)와 10개의 부정 단어(저주, 지옥, 폭력, 불신, 불행, 악마, 비겁, 질병, 절망, 전쟁)가 긍정성과 부정성의 순위를 토대로 선택되었다. 7점이 매우 긍정인 척도에서 긍정단어의 평균 긍정성은 6.25(SD=0.70)이며, 부정단어의 평균 긍정성은 1.81(SD=0.6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친숙도는 부정단어가 낮으나,

친숙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친숙도가 4-5점 사이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표4는 선택된 단어들(긍정 10개, 부정 10개)만의 긍정성 점수 평균치와 친숙도 점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선택된 지명. 표5는 연구팀에 처음에 선정한 영·호남 지명들을 앞서와 같은 <http://www.pinkbomb.net>에서 32명의 사전조사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지명이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정도, 그리고 많이 들어본 정도(친숙도)를 7점 척도로 물어 평균한 값이다. 각 표의 단어들 중에서 각 지역 대표성이 높은 상위 10개 지명들을 선정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웹을 이용한 설문에서 문자를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에 사용될 경상도와 전라도 지명을 선택하였다. 각 지역의 도시명 17개 중 대표성을 토대로 각각 10개씩 도시명을 선택하였다. 전라도 지역은 광주,

표 5. 호남(전라도)과 영남(경상도) 지명의 대표성과 친숙도(7점 척도) 평균(n=32)

호남 지명	대표성	친숙도	영남 지명	대표성	친숙도
1. 광주	6.50	6.44	1. 부산	6.56	6.50
2. 전주	5.78	5.94	2. 대구	5.44	6.06
3. 목포	5.28	6.00	3. 경주	4.75	5.66
4. 남원	4.47	4.94	4. 포항	4.31	5.41
5. 여수	3.97	4.94	5. 울산	4.31	5.31
6. 나주	3.78	4.75	6. 마산	3.84	4.78
7. 군산	3.75	4.50	7. 안동	3.75	4.72
8. 완도	3.69	4.63	8. 진주	3.22	4.63
9. 순천	3.56	4.47	9. 진해	3.16	4.53
10. 해남	3.44	4.41	10. 거제	3.16	4.47
11. 무주	3.41	4.75	11. 구미	3.13	4.34
12. 정읍	3.25	4.31	12. 창원	3.13	4.31
13. 이리	3.06	3.97	13. 영덕	3.06	4.44
14. 고산	2.56	3.38	14. 김해	2.91	4.31
15. 부안	2.50	3.38	15. 하동	2.72	3.56
16. 장흥	2.44	3.28	16. 충무	2.69	3.97
17. 벌곡	2.28	3.09	17. 상주	2.66	3.53

주. 대표성이 크다고 판단된 지명부터 열거함. 굵은 글자는 선택된 자극.

전주, 목포, 남원, 여수, 나주, 군산, 완도, 순천, 해남 등의 10개 도시가, 경상도 지역은 부산, 대구, 경주, 포항, 울산, 마산, 안동, 진주, 진해, 거제 등의 10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선택된 전라도 지역 도시의 평균 대표성은 7점 척도에서 4.25($SD=0.92$)이며, 경상도 지역 도시의 평균 대표성은 4.42($SD=1.0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31)=-1.46, p=.15$, 각 지역 지명에 대한 친숙도도 전라도가 $M=5.10(SD=1.16)$, 경상도가 $M=5.21(SD=1.17)$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31)=0.88, p=.39$.

표6은 선택된 영·호남 지명 10개씩의 친숙도와 대표성 평균으로, 친숙도와 대표성 각각에 대한 지역차 t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사전조사에서 선택한 지명들을 본 실험에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6. 선택된 영·호남 지명 10개씩의 친숙도와 대표성 ($n=32$)

	친숙도	대표성
경상도(영남) 지명 10개	5.21 (1.17)	4.25 (0.92)
전라도(호남) 지명 10개	5.10 (1.16)	4.42 (1.08)

이렇게 해서 본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 사전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자극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사투리:	머덜라고, 머다냐, 어찌꼬냐, 머시여, 왜 그냐, 난똥혀, 밥묵었냐, 아닌디, 머시냐, 그만혀.
경상도 사투리:	안자라, 머어꼬, 와이카노, 아이다, 우짜노, 모라꼬, 말라꼬, 어데가노, 머하노, 치아라.
전라도 지명:	광주, 전주, 목포, 남원, 여수, 나주, 군산, 완도, 순천, 해남.
경상도 지명:	부산, 대구, 경주, 포항, 울산, 마산, 안동, 진주, 진해, 거제.
긍정적 단어:	행복, 믿음, 희망, 사랑, 감사, 축복, 용기, 기쁨, 평화, 생명
부정적 단어:	저주, 지옥, 폭력, 불신, 불행, 악마, 비겁, 질병, 절망, 전쟁

본 실험 :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을 이용한 IAT 실험

연구 방법

실험참여자. 서강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수업에 참가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197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중 실험을 모두 마치지 않은 7명은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수업시간의 출신 지역조사 결과, 학생들의 출신지는 관심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학생이 각각 15명 이상씩 되며,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지역 학생만을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 자체도 실험의 의도에 예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였다. 190명 중 여자가 111명(58.4%), 남자가 79명(41.6%)였으며, 평균 연령은 약 26세이며(최소 20세, 최고 49세), 특수 대학원생들이 포함되어 30세 이상도 28명(15%)이나 참여하여, 결과를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령분포를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의 출신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출생지역과 주성장지역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상도에서 출생한 학생은 45명, 전라도에서 출생한 학생은 16명이며, 경상도가 주성장지인 학생은 30명이며, 전라도가 주성장지인 학생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약간의 보너스 학점을 받았다.

실험도구. 실험프로그램은 개인의 PC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Java Script 언어로 작성되었다. 실험 프로그램은 Greenwald와 Banaji의 암묵적 연합검사 홈페이지(<http://buster.cs.yale.edu/implicit>)의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며, 단지 Greenwald와 Banaji의 IAT 홈페이지에서는 명시적 태도조사가 html문서로 작성된 반면, 이 실험에서는 명시적 설문과 음성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 검사, 문자를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를 모두 한 Java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은 MicroSoft Explorer 웹 브라우저(4.0이상)에서 실행되며, 흐린 회색의 창으로써, 브라우저의 약 2/3 크기에 화면 중앙에 오도록 설계되었다. 지역편견에 대한 명시적 설문은 5점 척도의 지역 선호도를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도록 하

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대한 느낌을 '0=매우 차갑다'에서 '9=매우 따뜻하다'의 10점 척도로 선택 가능하게 하였다.

음성으로 들려지는 지역 사투리는 전형적인 사투리를 사용하면서도 음색이 비슷한 경상도와 전라도 남학생 목소리로 녹음되었으며, 긍정/부정 단어는 서울 표준말을 사용하는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되었다. 녹음된 음성은 Goldwave 4.25 Software를 통해 파일 크기가 작은 'au' file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Goldwave Software의 음성 Frequency 분석을 통해 모든 음성은 시작 후 100ms 후에 음성이 나오도록 편집되었으며, 각 음성의 길이는 최소 700ms에서 최대 800ms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음성의 볼륨도 일정하도록 편집되었다.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반응과 새로운 자극과의 지연시간은 200ms이므로, 반응이 일어난 후 실제 음성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300ms가 걸리도록 설계되었다. 실험이 모두 끝난 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험 데이터가 자동으로 지정된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

실험절차. 수업시간에 참가자들에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며, 음성이 나오는 멀티미디어 PC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실험에 참여하도록 알려주었으며, 실험시간은 약 15-20분 정도이므로 이 시간 동안 절대 방해 받지 않는 환경에서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자에게는 인터넷 URL만을(www.pinkbomb.net/iat) 주었으며, 한국인의 사회인지에 관한 실험이라고만 알려주었다. 주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사회인지에 대한 실험이라는 소개와 함께 수업시간의 주의 사항이 굵은 글씨로 다시 보여졌다. 이와 함께 '자동압축풀기'가 가능한 실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자들이 브라우저의 프로그램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며,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실험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참가자들 개인 PC의 C:\IAT 디렉토리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디렉토리의 iat.html 파일을 클릭함으로써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주어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실험프로그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사람에 대한 명시적 태도조사이며, 두 번째 페이지는 학생들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질문하였다. 개인 정보는 성별, 연령, 출생지역, 주성장지역, 부모의 출신지역과 함께 학점 반영을 위한 대학명과 학번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하나의 질문이라도 답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며, 만약 답하지 않은 질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주었다. 개인 정보를 태도조사 뒤에 넣은 이유는 개인 정보를 먼저 입력함으로써, 지역편견에 대한 솔직한 응답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암묵적 연합검사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사회인지 실험이라는 설명과 함께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잘못된 반응을 할 경우 자극 위에 X가 표시되며, 이때는 빨리 정확한 응답을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사투리를 사용한 음성검사와 지역명을 사용한 문자검사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순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각각의 세션은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그 순서는 ①전라도와 경상도를 구분하는 20회의 지역 변별 시행, ②긍정, 부정의 20회의 특성 변별 시행, ③지역 변별과 특성 변별의 조합 시행(40회), ④역으로 된 20회의 지역 변별 시행 ⑤ 2번과 4번의 조합 시행(40회)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총 140회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그림1 참조).

이와 같은 절차는 Greenwald의 인터넷 실험과 정확하게 동일한 절차이다. 실험이 시작되면 프로그램 창의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반응할 범주가 표시되고, 만약 화면 중앙에 나타나거나, 음성으로 들려지는 단어가 오른쪽 범주일 경우는 키보드의 '/' 키를 왼쪽 범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Z'키를 가능하면 빠르게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음성일 경우에는 글자크기의 스피커 아이콘을 화면 중앙이 보이고, 소리가 나왔다. 틀린 반응일 경우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극 위에 붉은 색의 X가 표시되며, 정확한 반응이 일어날 경우 다음 시행으로 넘어갔다.

틀린 반응은 반응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참가자의 평균 오반응은 약 33개(12%)이며,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2을 넘는 참가자 한 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280 시행 중 159개의

오반응). 실험이 모두 끝난 후 화면에는 실험에 참가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표시와 함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결과가 전송된다고 알려주었다. 실험에 대한 사후설명 은 강의시간에 자세히 주어졌다.

1	2	3	4	5
최초의표적 개념 변별	연합된 특성변별	최초의 조합과제	역으로 된 표적개념 변별	역으로 된 조합과제
전라도 경상도	*긍정 부정*	*전라도 *긍정 경상도* 부정*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긍정 전라도* 부정*

그림 1. 암묵적 연합검사의 절차에 대한 도식(*는 반응해야 할 방향을 나타냄).

본 연구의 가설대로, 만약 피험자가 영남인이거나, 혹은 호남에 대한 태도보다 영남에 대한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3단계 과제보다 5단계 과제가 더 쉽게 느껴질 것이고, 따라서 3단계 과제의 반응시간보다 5단계 과제의 반응시간이 더 짧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피험자가 호남인이라면, 혹은 영남에 대한 태도보다 호남에 대한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5단계 과제보다 3단계 과제가 더 쉽게 느껴질 것이고, 따라서 5단계 과제의 반응시간보다 3단계 과제의 반응시간이 더 짧을 것이다. 호남인에게는 3단계 과제가 양립가능한 조합과제로서 양립불가능한 5단계 과제보다 더 쉽게 느껴지며, 영남인에게는 5단계 과제가 양립가능한 조합과제로서 양립불가능한 3단계 과제보다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양립가능한 조합과제와 양립불가능한 조합과제에 응답하는 반응시간의 차이를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1998)는 IAT 효과(IAT effect)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지역 편견의 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IAT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IAT 측정 전의 명시적 태도 측정. 각 피험자가 본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화면에 명시적(explicit) 방법으로 지역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삽입하였다. 암묵적 측정치는 명시적 측정치의 영향을 덜 받

지만 명시적 측정치는 암묵적 측정치의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Yale의 IAT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측정치를 앞에 놓았다(McConnell & Leibold 2001 참조). 이때 사용할 명시적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았으며, 다섯 문항 중 자기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골라 문항 앞의 동그라미를 클릭하게 하였다:

- 1. 나는 전라도 사람보다 경상도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
- 2. 나는 전라도 사람보다 경상도 사람을 약간 더 좋아한다.
- 3. 나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을 동등하게 좋아한다.
- 4. 나는 경상도 사람보다 전라도 사람을 약간 더 좋아한다.
- 5. 나는 경상도 사람보다 전라도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여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IAT 측정치와 의식적 자기보고의 명시적 측정치 간 상관관계를 봄으로써, 우리가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 고정관념이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실제 연합강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지역 선호도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얼마나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느끼는지를 0점(차갑다)부터 5점(보통이다)를 거쳐 10점(따뜻하다)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것도 역시 IAT 시작 전에 측정하였다.

명시적 설문결과 전라/경상도 사람의 호오도는 5점 척도에서 $M=1.63(SD=0.93)$ 으로 전반적으로 경상도 사람을 약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도 사람에 대한 느낌은 11점 척도에서 $M=4.94(SD=2.06)$, 경상도 사람에 대한 느낌은 $M=4.97(SD=1.97)$ 로 거의 동일하게 중간 정도의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 설문은 경상/전라 출생지와 주성장지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생지와 주성장지에 따라 명시적 태도의 차이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참가자들이 더 많이 시간을 보낸 주성장지 구분을 출신지역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표 7. 출생지와 주성장지가 전라/경상인 참가자들의 명시적 태도 측정결과 평균

	지역	호오도(전라 선호)	전라도사람 따뜻한 느낌	경상도사람 따뜻한 느낌
출생지	경상도 (n=45)	1.16 (.74)	4.38 (2.15)	5.80 (2.06)
	전라도 (n=16)	2.68 (.70)	5.31 (2.18)	4.13 (1.89)
주성장지	경상도 (n=30)	1.10 (.76)	4.30 (2.18)	5.67 (2.43)
	전라도 (n=14)	2.43 (.76)	6.00 (1.96)	4.92 (1.70)

주. 호오도는 7점 척도 점수, 지역사람 느낌은 11점 척도 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

연구 결과

음성(청각)과 문자(시각) IAT 효과. 50% 이상의 오 반응을 보인 참가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189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Greenwald, McGhee, 및 Schwarz(1998)의 극단값(outlier) 처리 방법에 따라 300ms 미만인 반응시간은 300ms로 3,000ms 이상인 반응시간은 3,000ms로 변환하였다. 반응시간 연구에서 극단값을 제외하는 이유는 미처 완전히 보거나 듣기도 전에 반응키를 눌러버려 반응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졌거나, 혹은 실험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잠시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겨 반응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을 경우, 그런 극단값들이 자료 전체의 대표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응시간에서의 잠재적 변인들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반응시간을 모두 log로 변환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Greenwald, McGhee, & Schwarz, 1998, p. 1467 참조).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 IAT 효과의 결과는 표8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각자극으로 제시한 IAT의 효과는 “전라 사투리와 긍정단어, 경상 사투리와 부정단어” 세트에 대한 반응시간에서 “전라 사투리와 부정단어, 경상 사투리와 긍정단어” 세트에 대한 반응시간을 뺀 값이다. 음성 자극을 이용한 IAT 측정에서도 이 평균치의 차이점수는 영남인이 양수, 호남인이 음수로 나와, 본 연구의 가설대로 영남인이 호남인보다 영남 사투리 억양이 좋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의 음성과 짝지어졌을 때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호남인은 호남 사투리 억양이 좋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의 음성과 짝지어졌을 때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여 예상했던 대로의 IAT 효과를 나타냈다.

청각자극을 이용한 측정에서는 영남출신과 호남출신 피험자들 간의 IAT 효과 차이점증이 더욱 크게 유의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표 9와 비교).

주성장지가 경상도인 참가자(30명)와 전라도인 참가자(14명)를 대상으로 암묵적 연합점수(IAT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경상도 참가자의 경우 $M=206.09ms$ ($SD=141.95$), 전라도 참가자의 경우 $M=-200.80ms$ ($SD=277.99$)로 약 407ms의 차이를 보였다, $t(42)=6.29$, $p < .001$.

표 8. 경상/전라 출신 참가자들의 음성 IAT 점수 비교

주성장지	N	평균 IAT 점수	t(42)
경상	30	206.09 (141.95)	6.29***
전라	14	-200.80 (277.99)	

*** $p < .001$. 평균치의 단위는 ms(millisecond). 괄호 안은 표준편차.

단계별 반응시간 평균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영남출신 결과) 및 그림 3(호남출신 결과)이다. 여기서 IAT 효과는 3번째 단계인 ‘전라도-긍정, 경상도-부정’ 연합일 때의 반응시간과, 5번째 단계인 ‘경상도-긍정, 전라도-부정’의 연합에서의 반응시간의 차이

3) 출생지로 분석하였을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경상도 참가자의 경우 $M = 212.80ms$ ($SD = 149.04$), 전라도 참가자의 경우 $M = -113.41ms$ ($SD = 164.65$)로, $t(59)=10.05$, $p < .001$. 뿐만 아니라, 영·호남 이외 지역 출신 참가자들의 응답 분석에서도 영남 선호도가 높은 사람은 영남 출신과 유사한 IAT 효과가 나타났고, 호남 선호도가 높은 사람은 호남 출신과 유사한 IAT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차후의 결과분석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주성장지 구분의 결과만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다.

로 계산된다(IAT 점수=3단계 평균 반응시간 - 5단계 평균 반응시간). 즉 전라도에 대한 편견을 지닌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와 긍정 단어가 함께 연합되었을 때 반응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IAT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전라도에 대한 편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도 참가자들의 경우 3단계의 평균 반응시간은 $M=1,233.99ms$ ($SD=276.15$)인 반면, '상도-긍정' 연합인 5단계의 경우 $M=1,027.90ms$ ($SD=230.18$)로 206.09ms의 차이(IAT 효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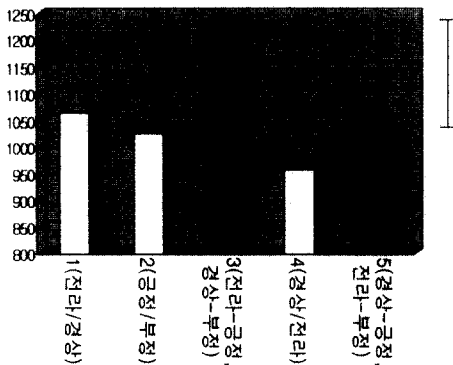


그림 2. 경상도 출신 참가자들의 음성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의 IAT효과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의 반응시간에서 '경상-긍정, 전라-부정' 세트의 반응시간을 뺀 값을 ms(millisecond) 단위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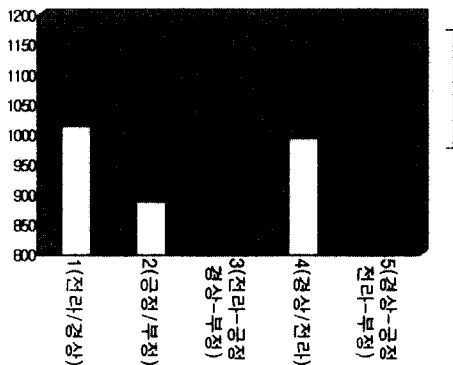


그림 3. 전라도 출신 참가자들의 음성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의 IAT효과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의 반응시간에서 '경상-긍정, 전라-부정' 세트의 반응시간을 뺀 값을 ms(millisecond) 단위로 나타냄).

영남출신 참가자의 자료인 그림 2에서는 경상-긍정, 전라-부정 세트로 이루어진 5단계 반응시간이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로 이루어진 3단계 반응시간보다 월등히 높아 IAT 점수가 양수(표 7 참조)로 나타났다. 반대로 호남출신 참가자의 자료인 그림 3에서는 경상-긍정, 전라-부정 세트로 이루어진 5단계 반응시간이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로 이루어진 3단계 반응시간이 월등히 높아 IAT 점수가 음수(표 7 참조)로 나타나, 그림2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음성 IAT와 문자 IAT 효과의 비교 분석에서, 음성 사투리를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가 단순히 시각적 자극을 사용한 암묵적 연합검사에 비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 평균치는 표 9와 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2(주성장 지역: 경상도 vs. 전라도) x 2(검사 유형: 음성검사 vs. 문자검사) 반복검증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9. 지역과 검사종류에 따른 IAT점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검사 종류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음성 IAT (청각자극)	206.09 (140.95)	-200.81 (277.99)
문자 IAT (시각자극)	160.73 (132.01)	-105.64 (182.64)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경상/전라 지역에 대해 강력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42)=75.30, p<.001$.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처럼 음성과 문자 모두에서 IAT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 IAT효과가 문자 IAT효과 보다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주성장지역 x 검사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 42)=0.90, p=.35$,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 IAT 검사가 문자 IAT 검사에 비하여 지역 선호를 구분하는 데 더 큰 IAT 효과의 방향성을 보여 주었으나, 통계적 유의미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음성 IAT검사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참가자들이 약 407ms의 IAT점수 차이를 보이는 반면, 문자 IAT검사에서는 약 267ms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예상할 수 있듯이 검사종류에 대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42)= 0.17,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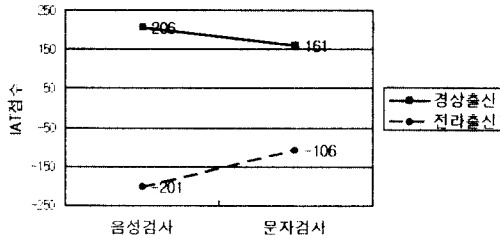


그림 4. 검사종류와 출신지역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러나 암묵적 연합검사와 명시적 태도와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음성을 이용한 연합검사 결과와 태도가 더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음성을 이용한 경우 상관계수가 $r=-.63, p<.001$ 인데 반해, 문자를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의 경우 $r=-.37, p<.05$ 로 나타나 음성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명시적 태도와의 상관관계. 음성의 청각적 제시를 이용한 암묵적 연합 검사 측정치들이 명시적 태도 측정치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호남 출신 참가자들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를 모두 구해 보았다. 표8에 보이는 것처럼, 음성 IAT 점수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명시적 태도조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63, p<.001$. 그러나, 전라/경상도 사람에 대한 느낌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전라도 사람에 대한 느낌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경상도 사람에 대한 느낌에서는 방향성은 보여주었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08$).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암묵적 연합 점수와 명시적 태도와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에서는 모든 명시적 태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결과이다. 홍영오와 이훈구(2001)의 연구에서는 $r=.16 (p=.60)$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McConnell과 Leibold(2001)이 밝힌 바와 같이 명시적 태도를 암묵적 연합검사가 끝난 후에 측정하였으므로 참가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눈치채고 명시적 태도조사에서 방어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상/전라 출신 참가자의 경우 문자 IAT 점수와 명시적 태도(숫자가 클수록 전라 선호도가 큰 쪽으로 측정됨) 간의 상관계수는 $r=-.37 (p<.05)$, 전라도 사람을 따뜻하게 느끼는 정도와의 상관계수도 역시 $r=-.41 (p<.01)$ 로서 유의하였으나, 경상도 사람을 따뜻하게 느끼는 정도와의 상관계수는 $r=.10$ 으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전라도 사람을 좋아할수록 전라도 사람을 더 따뜻하게 느끼고 경상도 사람을 더 차갑게 느꼈으며, 음성과 문자 IAT 점수는 더 낮게 나왔다. 즉, 전라도 사람을 좋아할수록 음성과 문자 모두에서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의 반응시간에서 전라-부정, 경상-긍정 세트의 반응시간을 뺀 IAT 점수”가 더 작게 나와 (음수 쪽으로 더 커짐), 전라도 선호도가 높을수록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에 더 빨리 반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시적 태도 측정치와의 상관관계는 문자 IAT보다 음성 IAT에서 더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반응 결과. 오류반응 분석에서는 전라-부정, 경상-긍정 세트에서만 경상, 전라 출신 피험자들의 오류반응 개수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10 참조). IAT에 근거한 예상 대로, 전라-부정, 경상-긍정 세트에서 전라 출신 피험자들의 오류반응이 경상 출신 피험자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참고로, 189명 전체 피험자의 평균은 사

표 8. 경상/전라 출신 및 전체 참가자의 음성 IAT 점수와 명시적 태도의 상관계수(r)

	명시적 태도 (전라 선호도)	전라도사람 따뜻한 느낌	경상도사람 따뜻한 느낌
경상/전라 출신(n = 44)의 음성 IAT 점수	-.63***	-.36*	.27
전체 참가자(n = 189)의 음성 IAT 점수	-.42***	-.21**	.20**

* $p<.05$, ** $p<.01$, *** $p<.001$. 괄호 안은 사례수.

같은 결과는 홍영오와 이훈구(2001)의 연구와는 다른

표 10. 오류율 평균치의 *t* 검증

	측정의 종류	주성장지	n	평균	<i>t</i> (<i>df</i> =42)
사투리 음성 IAT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에서의 오류	경상	30	6.53	n.s.
		전라	14	6.00	
	전라-부정, 경상-긍정 세트에서의 오류	경상	30	3.77	-2.874**
		전라	14	7.71	
지명 문자 IAT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에서의 오류	경상	30	4.80	n.s.
		전라	14	5.21	
	전라-부정, 경상-긍정 세트에서의 오류	경상	30	3.20	-2.950**
		전라	14	7.36	

* $p < .05$, ** $p < .01$, *** $p < .001$.

투리 음성 IAT에서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 7.40, 전라-부정, 경상-긍정 세트 6.76이었고, 지명 문자 IAT에서는 전라-긍정, 경상-부정 세트 6.15, 전라-부정, 경상-긍정 세트 5.89였다. 대체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더 반응시간도 길어지고 오류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논 의

개인들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지역편견은 사투리나 억양을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활성화된다. 그러므로, 청각자극 제시를 통해 지역편견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다 실제적인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IAT 실험절차를 통한 태도 측정이 시각자극이 아닌 청각자극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사투리 청각자극을 이용한 IAT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문자 자극 IAT와 같이 강한 암묵적 연합 효과를 나타내어, 암묵적 태도 측정에 크게 유용한 방법임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의 억양이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속한 지역이나 성별의 범주를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이 거의 자동적으로 다른 판단들이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처음 시도한 청각자극을 이용한 IAT가 신뢰로운 지역 편견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밝혀져, 작게는 IAT의 타당도를

높였고, 크게는 보다 현실적인 태도 또는 편견 측정법을 향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편견 문제는 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연구에서는 타지역인들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묻는 방법만을 사용해 옴으로써 거부감을 일으킨 적이 많았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와는 다른 응답을 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때 IAT와 같은 간접적 태도측정 방법을 이용한다면 응답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더욱 진짜 태도에 가까운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 가식 없는 진짜 태도의 측정이 가능해야 이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도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더욱 특기할만한 점은 기존의 IAT에서는 전혀 사용한 바가 없는 지역 방언 억양의 청각자극을 이용하여 암묵적 고정관념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서는 영남인인지 호남인인지 모르지만, 말할 때의 억양을 들으면 금방 출신지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남자도 여자같은 이름을 쓰고 여자도 남자같은 이름을 끈질기 쓰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금방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소리만 듣고서도 그 사람이 속한 범주(category)와 이에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개념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라 그 이후의 판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 1998; 나은영, 1997, 1998), 이와 같은 과정을 연구하는 데는 청각자극을 이용한 IAT

태도측정법이 아주 잘 들어맞는 방법이다. 우리의 머리 속에 있는 그대로의 연합강도를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편견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문제에 관한 태도, 혹은 직업 적성처럼 자기 자신도 명확하게 잘 모르는 적성에 대한 진단, 그리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등을 측정하는 데에도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IAT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의 경우 청각적인 정보에 의해 상대방의 범주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이것이 차후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청각자극을 통하여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 방법론적 의미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감정과 같이 상대방의 지역범주를 억양이나 사투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에서는 더욱 유용한 태도의 측정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의 지역범주도 주로 방언에 의해 판별되므로, 사회심리학에서의 태도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지역감정 이외에도 미국의 인종차별에서 백인들과 흑인들의 영어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IAT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존의 시각적 자극(백·흑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태도를 측정한 방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암묵적 연합검사가 주로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외모가 비슷한 집단에 대한 검사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음성을 이용한다면 외모가 비슷하지만 억양이 다른 집단(예를 들어 미국의 남부출신과 북부출신, 미국출신과 캐나다 출신 등)의 태도측정에 활용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다면,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는 일부 대학과 대학원 관련 참가자들의 주성장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출신지, 혹은 부모들의 출신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결과의 패턴은 동일하였다. 웹을 통한 검사 방법은 지역을 초월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므로, 향후에 더욱 폭넓은 모집단에 이와 유사한 검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사 유형별로 블록을 여러 세트로 만들면 더욱 신뢰로운 측정치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그것도 참가자의 피로에 의해 참된 태도 측정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블록의 검사를 시행한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IAT와 같은 암묵적인 태도측정 방법은 '사람들의 머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a bona fide pipe line)' 이므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Fazio, 1986).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지역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시적 출구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막상 투표 결과를 보면 지역색이 완연히 드러나는 투표자 태도 조사의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기존 조사 방법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궁극적인 지역감정 감소 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암묵적 연합검사 방법은 지역고정관념이나 편견 외에도 남녀 이름 또는 성역할행동 자극을 이용하여 성고정관념의 측정에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 관련된 자극이나 여성의 목소리와 다른 정서가의 형용사들을 연합시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고정관념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IAT 방법을 이용한 측정방법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정서가를 대립시켜 반응하게 하였으나(예를 들어, 긍정적인 의미일 경우 "I" 자판, 부정적인 경우에는 "Z" 자판), 성고정관념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의 범주를 판단하게 하여 고정관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예컨대, 남성과 관련있으면 "I" 자판, 여성과 관련있으면 "Z" 자판). 즉 정서가의 암묵적 연합이 아니라, 의미기억에서 연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실험방법은 그림5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IAT가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직업적성·흥미검사 영역이다. 개인이 의식적으로 선호한다고 믿는 직종은 자신의 선호도와 함께 부모들의 이상자기(ideal-self) 혹은 의무자기(ought-self) 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묵적 측정치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Higgins, 1987). 예를 들어 "기술자"와 관

단 계	1	2	3	4	5
과제명	최초의 목표개념 변별	연합된 특성 변별	최초의 조합과제 (양립가능 세트)	역전된 목표개념 변별	역전된 조합과제 (양립불가능 세트)
과제 지시	• 여성이름/목소리 남성이름/목소리 •	• 여성 역할 남성 역할 •	• 여성이름/목소리 • 여성 역할 남성이름/목소리 • 남성 역할 •	여성이름/목소리 • • 남성이름/목소리	여성이름/목소리 • • 여성 역할 • 남성이름/목소리 남성 역할 •
자극 예시	김경수 ○ ○ 정보경 ○ 최수미 박철순 ○ ...	○ 설것이 ○ 요리 회사 ○ 신문 ○ ...	○ 정보경 ○ 요리 김경수 ○ 회사 ○ ...	○ 김수홍 ○ 이재민 나영미 ○ ○ 김준호 홍영희 ○	○ 정재철 ○ 빨래 김지선 ○ 공구 ○ ○ 최성용

그림 5. 남녀 이름(시각자극)과 목소리(청각자극)를 이용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측정 IAT의 가능성 예시.

련된 물건 이름들이나 행동유형들과 “작가”와 관련된 자극들을 IAT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어느 쪽이 더 호감을 주는 단어들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구별함으로써 참가자가 어느 쪽의 직업군을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지를 측정할 수 있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더 빨리 반응할 것이며, 이런 직업이 호감을 주는 단어와 짝지워진 양립가능 조합과제를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쉽고 빨리 해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도 지금까지는 자기보고와 같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측정치를 사용해 왔다(안광호 · 이진용, 1997). 그러나 암묵적 활성화 과정을 고려한다면,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연합된 정서가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차후의 구매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상만 · 권준모, 2001). 예컨대 사람들은 “나이키” 혹은 “코카콜라”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이미 이와 같은 브랜드가 강한 정서가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강한 정서가를 지닌 브랜드의 경우 기존의 인지적인 태도-행동이론(예: 합리적 행위 이론)과 전혀 다른 과정으로 고려상표군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강한 정서가를 지닌 브랜드의 경우에는 자기보고식의 측정방법보다는 암묵적인 혹은 자동활성화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더욱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강한 브랜드의 경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활성화 확

산에 의한 자동적 처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강한 편견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특히 암묵적 연합 검사가 활용될 여지가 크다.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암묵적 과정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시적 측정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는 명시적 측정치와 함께 태도의 심층적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암묵적 측정치가 함께 활용되어야만 보다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넓은 연구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통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2(1), 1-36.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221-253). 서울: 성원사.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23-169). 서울: 성원사.

김혜숙(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53-70.

나은영(1997). 역고정관념의 암묵적 활성화와 인상형성:

- 남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1(2), 129-145.
- 나은영(1998). 강한 태도의 편파적 처리과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이중처리과정 이론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2(1), 37-70.
- 나은영(1999). 태도강도 개념의 다차원성과 그 측정 방법. 고재홍 외 10인 공저, *현대사회심리학 연구* (제2장, pp. 39-75). 서울: 시그마프레스.
- 민경환(1988). 집단간 갈등 - 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91-121). 서울: 성원사.
- 안광호 · 이진용(1997). 브랜드 파워. *한국언론자료 간행회*.
- 안상수 (1999). 지역-범주 점화과제에서 암묵적 고정관념 활성화와 억제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 (1988). 집단 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인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5-65). 서울: 성원사.
- 유주관 · 김혜숙(1999). 지역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득메시지의 효과: 설득자 집단범주와 메시지 유형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3(1), 165-182.
- 이수원(1988). 집단 고정관념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67-89). 서울: 성원사.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상만 · 권준모(2000). 상표연상강도의 측정방법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일반*, 11(4), 187-209.
- 홍영오 ·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belson, R. P. (1988). Conviction. *American Psychologist*, 43(4), 267-275.
- Abrams, R. L., & Greenwald, A. G. (2000). Parts outweigh the whole (word) in unconscious analysis of meaning. *Psychological Science*, 11(2), 118-124.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181-198.
- Bassili, J. N. (1993). Response latency versus certainty as indexes of the strength of voting intentions in a CATI survey. *Public Opinion Quarterly*, 57, 54-61.
- Bassili, J. N. (1996). Meta-judgmental versus operative indexes of psychological attributes: The case of measures of attitude streng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637-653.
- Blair, I. V., & Banaji, M.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142-1163.
- Dasgupta, N., McGhee, D. E.,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0). Automatic preference for White Americans: Eliminating the familiarity expla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316-328.
- Dovidio, J. F., Kawakami, K., Johnson, C., Johnson, B., & Howard, A. (1997). On the nature of prejudice: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510-540.
- Elwell, C. M., Brown, R. J., & Rutter, D. R. (1984). Effects of accent and visual inform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3, 297-299.
- Fazio, R. H. (1986). How do attitudes guide behavior?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204-243). New York: Guilford Press.
- Fazio, R. H. (1989). On the power and functionality of attitudes: The role of attitude accessibility.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Ch. 7, pp. 153-17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azio, R. H., & Zanna, M. P. (1981). Direct experience and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In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 pp. 161-202). New York: Academic Press.
- Giles, H., & Farrar, K. (1979). Som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peech and dress style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209-210.
- Giles, H., & Powesland, P. F. (1975). *Speech style and social evaluation*. London: Academic Press.
- Giles, H., & Sassoon, C. (1983). The effects of speaker's accent, social class background and message style on British listeners' social judgments. *Language and Communication*, 3, 305-315.
- Greenwald, A. G. (1989). Why attitudes are important: Defining attitude and attitude theory 20 years later.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Ch. 17, pp. 429-44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S. (2000). Unified theory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Submitted Draft of January 14, 2000.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Submitted draft of March 24, 2000.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theor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King, G. A., & Marvin, G. H. (1982).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and subjective impressions and rec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35-47.
- Higgins, E. T., Rholes, W. S., & Jones, C. R. (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41-154.
- Hovland, C. I., Harvey, O. J., & Sherif, M. (1957).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reactions to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5, 244-252.
- Kalin, R. (1982).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eech in medical, legal, and occupational settings. In E. B. Ryan & H. Giles (Eds.), *Attitudes towards language: Social and applied contexts*. London: Edward Arnold.
- Katz, D., & Brady, K. (1933). Racial stereotypes in one hund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Krosnick, J. A., & Petty, R. E. (1995). Attitude strength: An overview.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Ch. 1, pp. 1-2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Piere, R. T. (1934). Attitudes vs. actions. *Social Forces*, 13, 230-237.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 McConnell, A. R., & Leibold, J. M. (2001). Relations amo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discriminatory behavior, and explicit measures of racial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chology*, 37, 435-442.
- Norman, R. (1975).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attitudes, conformity,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83-91.
- Roskos-Ewoldsen, D. R., & Fazio, R. H. (1992). On the orienting value of attitudes: Attitude accessibility as a determinant of an objects's attraction of visual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98-211.
- Sagar, H. A., & Schofield, J. W. (1980).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90-598.
- Sample, J., & Warland, R. (1973). Attitude and prediction of behavior. *Social Forces*, 51, 292-304.
- Schuman, H., & Johnson, M. P. (1976).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161-207.
- Seligman, C., Lambert, W. E., & Tucker, G. R. (1972). The effects of speech style and other attributes on teachers' attitudes toward pupils. *Language in Society*, 1, 131-142.
- Sherif, M., & Cantril, H. (1947). *The psychology of ego-involvements*. New York: Wiley.
- Sherif, C. W., Kelley, M., Rodgers, H. L., Sarup, G., & Tittler, B. I. (1973). Personal involvement, social judgment, an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311-328.
- Smith, E. R., Fazio, R. H., & Cejka, M. A. (1996). Accessible attitudes influence categorization of multiply categorizable o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88-898.
- Smith, E. R., & Zarate, M. A. (1992). Exemplar-based model of soci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99(1), 3-21.
- Stephan, W. G., & Stephan, C. W. (1993). Cognition and affect in stereotyping: Parallel interactive networks. In D. M. Mackie & D. L. Hamilton (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 (Ch. 6, pp. 111-136). New York: Academic Press.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96-102.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Forgas, J. P. (1981). Social categorization: Cognitions, values, and groups. In J. P. Forgas(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New York: Academic Press.
- Tajfel, H., & Wilkes, A. L. (1963). Classification and quantitative judg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4, 101-114.
- Wicker, A. W. (1971). An examination of the "other variable" explanation of attitude-behavior in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 18-30.
- Wiemann, J. M., & Giles, H. (1988).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Hewstone et al. (Eds.),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Wilder, D. A., & Simon, A. F. (1996). Incidental and integral affect as triggers of stereotyping.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The interpersonal context* (Vol. 3, Ch. 12, pp. 397-419). New York: Guilford Press.

Measurement of the Strength of Regional Prejudice by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Its Applications

Eun-Yeong Na and Joonmo Kwon

Sogang University and Kyunghee University

The voice-based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regional prejudice between Kyungsang-Do and Cholla-Do people in Korea, since they use very distinctively different accent. The text-based IAT was also included during the experiment to compare the size of the IAT effect between the voice and text based IAT test for regional prejudice. It was found that the voice-based IAT was very effective to measure the implicit attitude of each region and highly correlated with the explicit attitude measurement.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s in terms of attitude measurement methodology and real world ap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implicit association test, regional prejudice, attitude measurement, dialect, voice, implicit/explicit attitudes

원고 접수: 2002년 1월 10일
심사 통과: 2002년 2월 5일